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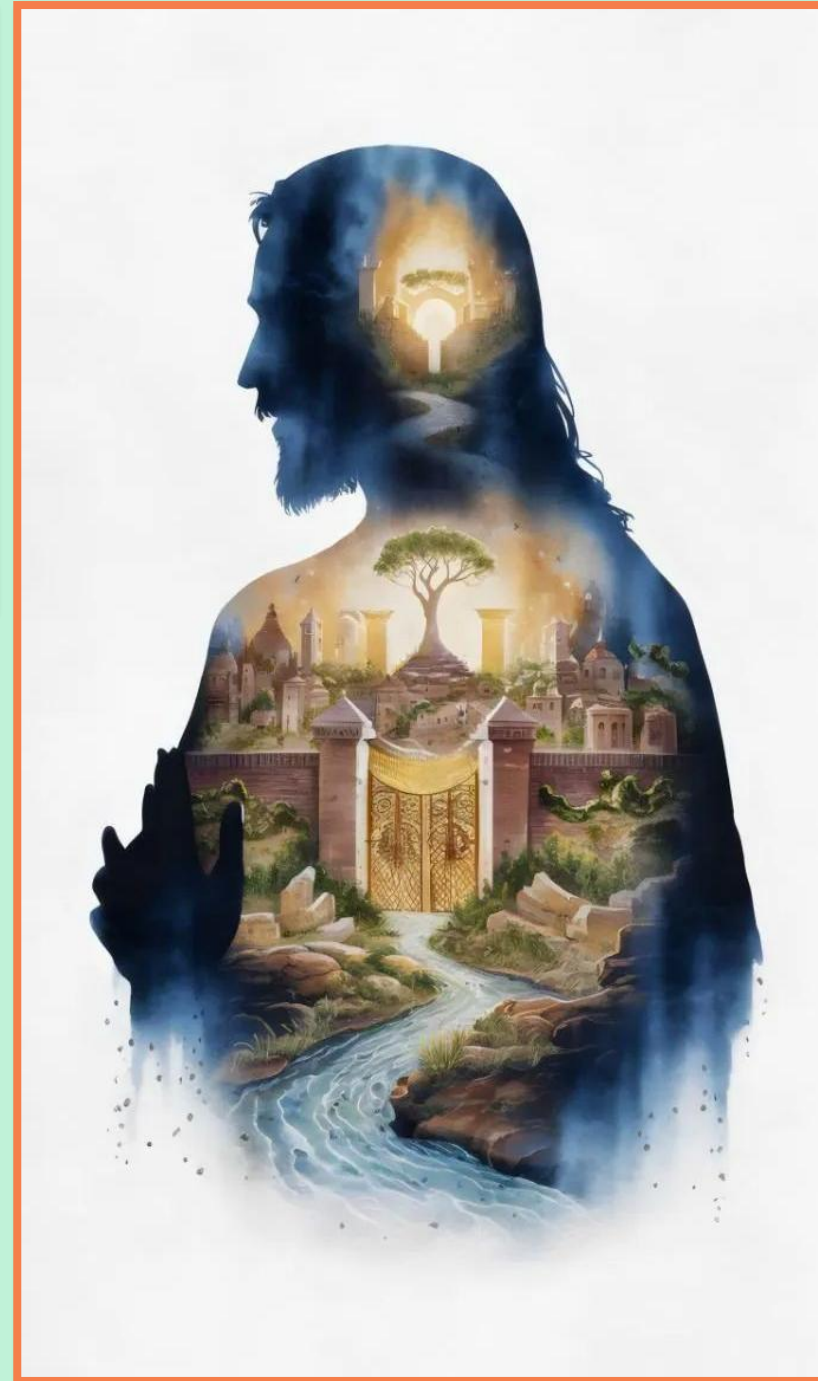


최고의 충성: 전쟁터에서 (하나님을) 경배함

7과. 2025년 11월 15일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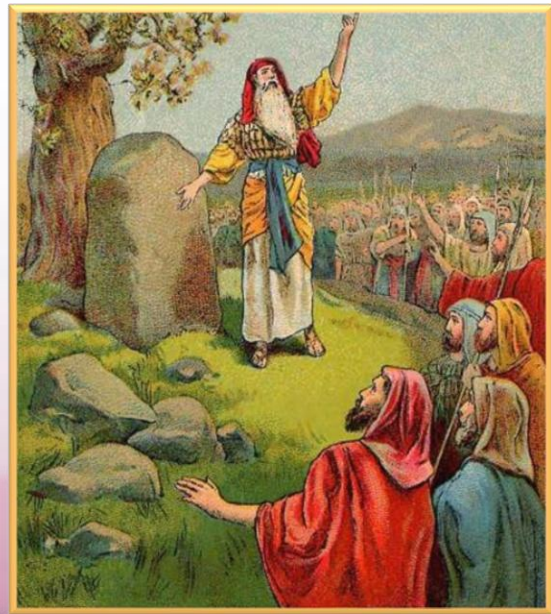
“그런즉 너희는
먼저 그의 나라와
그의 의를 구하라
그리하면 이 모든
것을 너희에게
더하시리라”
마 6:33



이스라엘이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너자 가나안의 모든 왕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(수 5:1). 가나안은 당장이라도 정복당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. 하지만 이스라엘의 우선순위는 정복이 아니었습니다. 그들은 먼저 하나님과 자신들의 관계를 재정비해야 했습니다.

가나안 정복전쟁이 진행되는 와중에 그들은 에발 산과 그리심 산 사이에서 큰 집회를 열고 주님께 자신을 재 헌신하기 위해 잠시 숨을 고르기로 결정했습니다.

가나안 정복을 거의 마무리한 그들은 실로에 성소를 건축함으로 예배의 새 기념비를 세웠습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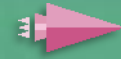
정복에 나서기 전에 예배드림:



언약을 갱신함 (수 5:1-9)



가나안에서 맞은 첫 유월절 (수 5:10-12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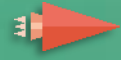
산들 가운데서 예배드림:



예배를 위한 제단 (수 8:30-31)



율법을 기억함 (수 8:32-35)



예배를 위한 특별한 장소:



성소를 지음 (수 18:1)



정복에 나서기 전에 예배드림



언약을 갱신함

“그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” (수 5:2)

길갈은 정복 초기에 이스라엘 지휘 본부가 있었던 곳이었습니다.
이 이름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까 (수 5:9)?

이집트를 떠난 지 40년이 넘었지만, 이스라엘은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. 이제 그들의 발이 가나안 국경을 밟았습니다.
“이집트에서의 치욕”을 지우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할 때가 되었습니다.



첫 유월절을 지키기 전에 이스라엘 남자들은 할례를 받았습니다.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(출 12:48). 그들의 부모세대가 처음에 가나안을 정복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(하나님과의) 언약은 깨졌고, 되돌아간 광야에서 할례를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(수 5:5)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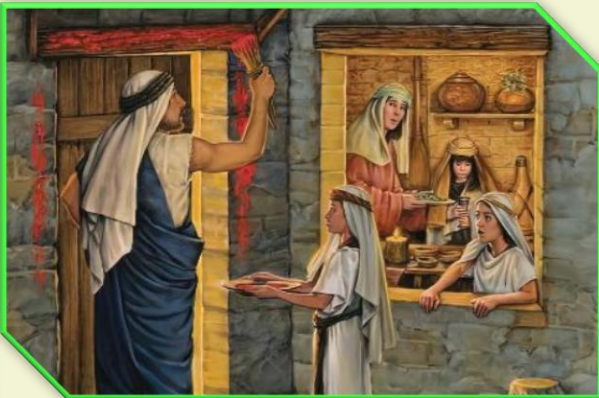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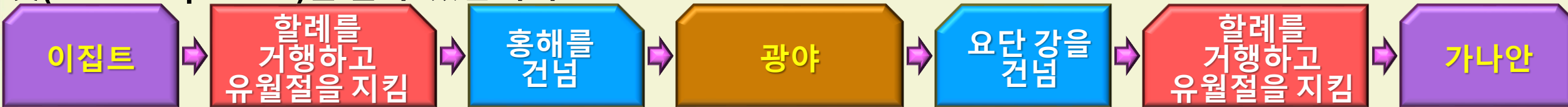
깨어진 언약을 새로 회복하려면 그 언약을 상징하던 의식을 다시 거행해야 했습니다(창 17:10). 그리고 이 의식은 삶의 우선 순위를 정했습니다. 우리도 이 모범을 따라야 합니다. “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” (마 6:33).



가나안에서 맞은 첫 유월절

“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 쳤고 그 달 십사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”
(수 5:1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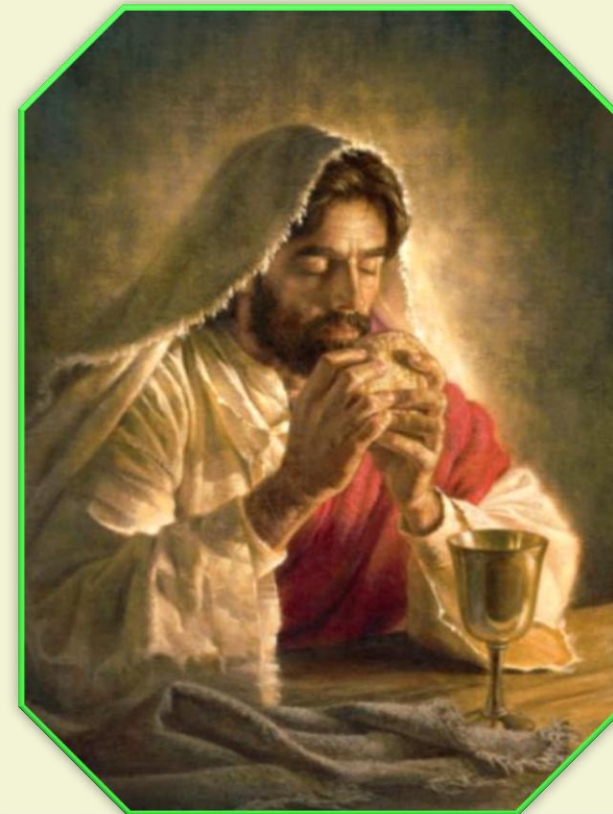
이집트에서 나와 가나안을 정복까지의 사건들을 열거해보면 그 순서가 반복되며 역순으로 서로 대칭이 되는 것(Chiastic pattern)을 볼 수 있습니다.



첫 번째 유월절은 이집트로부터 해방을 상징했고, 새로운 세대가 기념한 두 번째 유월절은 언약의 땅 정복을 상징했습니다.

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유월절 의식에 새로운 의미와 상징을 부여하셨습니다. 빵은 어린양을, 그리고 포도즙은 그 피를 상징했습니다.

그리고 우리에게 유월절은 애굽, 즉 각자의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신 우리 구속주의 몸과 피를 상징합니다(고전 11:23-26).



산들 가운데서 예배드림



예배를 위한 제단

“그 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 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” (수 8:30)



모세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에 들어가면 에발 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라고 명령했습니다(신 27:5-7). 그런데 왜 그리심 산이 아니라 에발 산에 제단을 쌓았을까요?

그 곳에서 백성들에게 선포한 제단과 기념비에 기록된 율법은 모두 축복과 저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(신 27:12-13). 축복은 그리심 산에, 저주는 에발 산에 선포되었습니다.

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고 우리는 저주 대신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(갈 3:13-14). 이 제단은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.



가나안 정복전쟁 중에도 이스라엘은 새롭게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다 같이 모였습니다. 이 이야기는 우리도 그들의 모범을 따라, 개인적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다시 헌신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.

율법을 기억함

“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” (수 8:32)

여호수아는 에발 산에 제단을 쌓은 후,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발랐습니다. 그리고 그 위에 십계명과 신명기에 나오는 율법, 규례, 그리고 축복과 저주들을 세겨 넣었습니다(수 8:32; 신 27:2-3).

마지막으로 백성들은 반으로 나뉘어 각각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섰고 율법이 그들에게 낭독되었습니다(수 8:33-35). 이렇게 하여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언약이 새롭게 되었습니다.

이 행사는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.
하나님의 남은 백성인 우리는
그분과의 언약을 갱신하며, 여기까지
인도하셨고 축복하신 하나님을
주기적으로 기억해야 합니다.



성찬식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개인적으로
새롭게 될 뿐 아니라, 하나된 하나님의
백성으로 다 같이 특별히 새롭게 될 기회를
갖게 됩니다.



예배를 위한 특별한 장소



성소를 지음

“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
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” (수 18:1)



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. 그 영토는 가장 영향력 있는 지파들에게 분배되었지만, 나머지 일곱 지파는 아직 자신들의 땅을 받지 못했습니다. 르우벤, 갓,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의 용사들은 요단 강 건너편에 있는 그들의 소유지로 돌아가야 했습니다.

각 지파가 분배 받은 땅으로 흩어지기 전에 특별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. 즉, 이스라엘 예배의 중심인 성막을 짓는 것이었습니다(수 18:1).

모두가 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소는 백성들이 예배 드리면서 하나가 되는 장소였습니다. 하나님께서 함께하시지 않으면 가나안을 차지하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.

오늘날, 정복해야 할 현대적, 탈현대적 거인족들과 같은 문제들에 직면한 우리도 반드시 하늘 성소를 주목해야 합니다. 예수님께서서는 하늘 (지)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.



“모세가 모든 백성들 앞에서 신명기 전체를 선포한 지 몇 주되지 않아서, 여호수아가 다시 그들에게 율법을 낭독했습니다. 이스라엘 남자들 뿐만 아니라 “모든 여자와 어린아이들”도 선포된 율법에 귀를 기울였습니다. 그들도 율법을 잘 배워서 각자가 해야 할 의무를 다해야 했기 때문입니다...

성경의 모든 장과 절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는 기별입니다. 우리는 이 말씀들을 손과 이마에 표징으로 삼고 지켜야 합니다. 성경을 연구하고 순종하면, 낮에는 구름기둥으로,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.

엘렌 화잇 (부조와 선지자. 500-504)